

## 총장-뉴스레터 – 78 (2024-4-12) 출 20 장 12 절-17 절 (제 5-10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12-17)

하나님께서 시내산 선민 언약 체결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행동 규범인 십계명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율법의 중심 곧 율법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바라볼 때 단순히 우상 숭배를 비롯해 살인, 도적질 등의 금지에 관한 도덕률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 그것보다 십계명을 본질에 관한 계명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십계명은 대신 관계 (對神關係)에 관해 다루고 있는 제 1-4 계명과 대인 관계 (對人關係)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5-10 계명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십계명 자체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 내 구성원들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증거해 준다.

### 제 5 계명

이 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복종과 종속이라는 더 따질 수 없는 형식적 원리가 아니라, 앞선 세대의 생활경험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 가운데 하나로 늙으신 아버이를 잘 모시는 일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아버이를 공경하는 것이 한 민족의 삶을 규정하면, 이 계명에 약속으로 덧붙여 있는 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 계명과 뒤이어 나오는 계명들은 법적으로도 처벌되는 잘못들을 막으려 한다. 그러나 십계명은 형법이 아니므로, 다른 범죄에 적용되는 형량이 십계명에는 나오지 않는다.

### 제 6 계명

이 계명은 무고한 자를 죽이는 범죄행위를 막으려 한다. 살인이란 단순히 나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홀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최악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멸시하는 엄청난 범죄이다. 구약 시대의 이같은 단호하고 절대적인 금지 명령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더욱 엄중화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형제에게 피를 흘리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형제에게 욕하는 것조차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마디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심으로써 이 계명을 더 넓은 뜻으로 풀이하셨다.

## 제 7 계명

구약에서 간음은 본디 남편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후손의 순수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음'은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키는 '자나'와 달리 결혼한 자들이 부부가 아닌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레 20: 10). 본문에서 특별히 '나아프'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매춘(레 19:29)이나 동성애(레 18:22 ;신 23: 18)나 수간(32: 19) 등 모든 성적 범죄가 정죄받아야 하지만 특히 결혼한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나 성관계를 맺는 대상 모두를 더럽히는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이다.

## 제 8 계명

제 8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도적질은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그의 동의없이 취하여 물질적으로 형제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만을 일컫지 않는다.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볼 때 이는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정신적으로 형제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 그리고 형제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분깃이나 노임을 지불치 않는 부도덕한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남의 소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후리는 것을 - 종으로 외국에 팔려고 자유인을 납치하는 일을 - 막으려고 했을 것이다.

## 제 9 계명

'거짓 증거'란 '법정'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 변조 또는 과장하여 진실에서 떠난 모든 말과 행동을 일컫는다. 법정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증인이 거짓으로 진술하여 무고한 자에게 사형이 언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거스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심히 가증히 여기시는 악행이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일절의 모든 행동을 절대해서는 안된다.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계명이 거짓말을 일절 금지한다고 풀이한다.

## 제 10 계명

이 계명에서 막으려는 것은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이웃에게서 삶의 토대를 빼앗으려는, 드러나거나 숨은 음모이다. 집이란 말은 건물만을 뜻하지 않고, 뒤이어 열거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가정' 전체를 뜻함으로 물려받은 토지도 포함된다. '가정'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만들어 가는 가정이고, 가족이라는 생명 공동체의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이웃의 집을 욕심내거나 이를 취하려고 하는 태도는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범죄이다.

## 생각하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자 백성은 이를 견뎌낼 수가 없었다. 모세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위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죽음과 파멸을 퍼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가르침을 베풀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백성을

안심시킨다. 십계명의 선포는 시내산에서 벌어진 사건의 중심이 되지만, 십계명은 시내산 사건을 넘어서서 하늘에서부터 내려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야 할 결정적인 말씀이다.